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13/2022

22-08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녹) 연중 제6주일  
(Gr) 6th Sunday in Ordinary Time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Blessed are the poor. Woe to you who are rich.”

루카 6:20-21 / Lk 6:20-21

###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 미사시간 Mass Schedule

####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외	김(테레사)	951-751-5696

###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2월 / February

####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We pray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thanking them for their mission and their courage; may they continue to find new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s.

연중 제6주일 (다해) / 6th Sunday in Ordinary Time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Be my protector, O God, a mighty stronghold to save me. For you are my rock, my stronghold! Lead me, guide me, for the sake of your name.

【제1독서/First Reading】 ..... 예레 17,5-8 / Jer 17:5-8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Blessed are they who hope in the Lord.

【제2독서 / Second Reading】 ..... 1코린 15,12.16-20 / 1 Cor 15:12, 16-20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 에서 받을 상이 크다 ◎

Rejoice and be glad;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복음 / Gospel】 † ..... 루카 6,17.20-26 / Lk 6:17, 20-26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They ate and had their fill, and what they craved the Lord gave them; they were not disappointed in what they craved.

2/13 미사지향 (Mass Intention)

10am

연미사(D): 이미카엘,김율리안나,양헬렌,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김대식 베드로,이불케리아,이웅렬 요한,  
안요황,박바드리시아,이복순 골롬바,신바오로,류희운,박관밀,  
채말기 모니카,변정창 마리아,김안예 아네스,강이나시오,  
김엘리사벳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박정대 그레고리,박정문 제임스,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김다니엘,이도미틸라,이미자 테레사& 조앤 가정,  
이마리아,박우슬라 가정

3pm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 6.20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the kingdom of God is yours. Lk 6,20

## 행복이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 때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왜 공부하니?”라는 물음이었습시다. 저는 아무 생각 없던 아이인지라 이 질문의 의미도 몰랐습시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나름대로 답을 내놓습시다.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요”, “편하게 살기위해”,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 등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시다. 그중 가장 한 친구의 말이 남습시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란, 소수의 특권층이 되어 세상의 권력과 자본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고 다수를 지배하며 산다는 것을 내포한 것인데 10대 중반의 아이가 가지는 생각치고는 너무 속화되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20대 초반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시다. 이 철없던 어린 시절의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물어보시는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은 지금도 너는 무엇 때문에 사니? 즉, 너 행복하니? 라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물음에 무엇이 행복이지? 라고 한번쯤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성서에 행복을 너무 분명하게 말하습시다.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미움,모욕,중상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시고 대비적으로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모두 불행하다고 말하습시다. 사람들의 행복이란? 근본적으로 자신을 만족하는 것이 행복일터인데, 가난하고 굶주리며, 슬퍼하며 심지어는 곤란과 미움, 누명까지 쓰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시니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시다.

그러나 복음을 잘 살펴보면 가난한 것, 굶주림, 슬픔, 미움과 모욕 누명을 쓰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것 즉,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겪는 고초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인들이 간 길이 이 길이였습시다. 거꾸로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득차고,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과 자신의 이기심에 지금 웃는 사람들 또 과장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과 멀어지기 불행해 질 수밖에 없습시다. 자신이 우상화 되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함으로서 하느님과 이웃을 멀리하게 되기에 세상이 주는 맛에 육신과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하느님의 속성은 내어줌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 자체가 내어줌에 있습니다. 가두시고 억압하는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자비의 하느님 이습시다. 이러한 분을 사랑하고 증거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더 큰 위안과 위로의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습시다.

인도 캘커타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Bojaxhiu)는 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답하죠. “우리가 나누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묻습시다. “그러면 가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씩 나누면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하습시다. 곧 이것이 마더 테레사가 찾던 행복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오는 행복은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며 이론과 체계의 논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복이란 세속적인 자아실현(自我實現, self-actualization)과도 다릅시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놓음으로서 얻어지며,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행복은 끊임없는 자신의 이기심의 만족에 기인합니다.



## What is happiness?

Perhaps it was in my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lass.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s, "Why do you study?" I was not a bright kid at the time, and I didn't realize the meaning of this question. Still, other kids have their answers. "To make money", "To live comfortably", "To meet good spouse", etc. I particularly remember one kid's answer; "To not get behind in a society ruled by a small group of elites."

"A society ruled by a small group of elites" means a few are privileged with a monopoly on power and capital, controlling the public. It was a too materialistic view for a teenager. I realized the meaning of the answer only after my 20s. The younger day's question of "Why do you study?" now became the question of "Why do you live?" or "Are you happy?"

"Are you happy?" You may have thought about the meaning of happiness after this question. Meanwhile, Jesus clearly defines happiness in the Bible. He says happy are those, who are poor, who are now hungry, who are now weeping, and who are hated. On the other hand, he denounces the rich, filled now, laugh now, and spoken well of. Human happiness? Perhaps it means high self-satisfaction. Jesus tells the opposite; the poor, hungry, weeping, and hated are happy. It wasn't easy to accept this point while studying in the seminary.

However, if we carefully read the gospel, we can realize that men can become the poor, hungry, weeping, or hated for the sake of God. We may accept these results if we love God and our neighbors, and that is happiness. How difficult can this be! Still, all the saints followed this path. On the contrary, those filled with selfishness can be rich, filled now, laugh now, and spoken well of for a while, but they become miserable afterward as they depart from God. These people worship themselves filling personal desires and isolated from God and neighbors. Their body and soul get bound to worldly pleasures.

God is giv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humans is a gift of God. He does not contain and restrict, but He is merciful who gives everything. Therefore, Jesus teaches us loving and testifying God provides greater happiness of comfort and grace.



Mother Teresa Bojaxhiu in India had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a man. He asks, "Why are there the poor or the ones in pain if there is God?" At this question, Mother Teresa answers, "Because we do not share and do not love each other." He asks again, "How can we solve poverty and make the world more peaceful?" Mother Teresa answers, "We all, including you, should share a little more." She says, "Helping and loving those poor and ill is loving God." Such is the happiness Mother Teresa was going after.

We can only realize the happiness of loving God through experience. Logics and theories cannot explain. Such happiness differs from worldly self-actualization. Many seek to satisfy their selfish desires and falsely call it happiness. True happiness comes from devoting myself to God.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2/13 Sunday		2/15 Tue	2/16 Wed	2/17 Thurs	2/18 Fri	2/20 Sun	
Mass Time	10am	3pm	7:30pm	10am	No Mass	7:30pm	10am	3pm
해설/ Narrator	송율리안나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김소화데레사	최안드레아	
독서/ Readers	신모니카 김세실리아	M. Angel Daisy Ramos					김분도 김소화데레사	M. Angel Cecilia Park
전례부/Altar Server	김마지아 정바오로	Matias Kim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김마지아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반주/Organist	강실비아	Juliana Cho	조율리안나	김미카엘라		조율리안나	김스콜라스티카	Juliana Cho
봉헌/Offeratory		Antoinette A. Cecilia Cosme						Antoinette A. Cecilia Cosme

### 교리상식 101

#### 3. 미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미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앙 공동체가 안식일에 거룩히 지내던 예배의 형태가 미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주일에 복음 말씀을 들었고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모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며 사제나 부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신자들은 주일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경과 친숙해지고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게 키워 나가게 됩니다.

말씀 전례에 이어서 성찬 전례가 계속됩니다. 성찬 전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행하셨던 파스카 예식을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고 명하신 그 뜻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파스카에서는 어린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최후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어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미사는 참회 예식과 말씀 전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데 대한 감사 기도와 영성체로 이어지고, 강복과 함께 각자 삶의 자리로 파견하는 마침 예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 Bible Trivia 1001

21. How many apostles did Jesus choose?
22. What are the wages of sin?
23. Who is the first mother mentioned in the Bible?
24. Who else, other than the wise men, came to visit Jesus when he was a small child?
25. Who lied when he was asked to reveal the source of his great strength?

Answers from 2/6 Bulletin

13. Creation 14. King of Jews/ This is Jesus, King of the Jews 15. Moses 16. Forty 17. She was a virgin 18. Wise men/ magi  
19. He was swallowed by a great fish 20. God's

## 본당소식 / Parish News

### ◆ 연도

오늘 10시 미사 후 故 김안에 아녜스 자매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 사순준비 전례단 모임

일시: 오늘 미사 후

### ◆ 전례단 모임 (Liturgy Leader Meeting)

일시: 2/20(일) 10시 미사 후

###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 2/27(일) 10시 미사 후

###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지식: 2/14(월) 오후 8시

군셈: 2/17(목) 오후 8시

경외: 2/21(월) 오후 8시

지혜: 2/23(수) 오후 8시

### ◆ 평일미사

남가주 MSC 사제 모임 관계로 2월 17(목)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There will be no weekday mass on 2/17(Thurs) due to MSC priest meeting.

### ◆ 성지가지 회수

작년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2월 27일(일)까지 성당 입구에 성지가지 회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희망속에  
기뻐하고  
한나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로마12,12

##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구역	교무금	DDF
경외	\$9,000	\$4,000
군셈	\$10,460	\$1,460
의견	\$14,000	\$1,100
지식	\$8,340	\$2,510
지혜	\$18,620	\$5,142
통달	\$6,720	\$1,360
효경	\$7,280	\$1,560
기타	\$480	\$480
합계	\$74,900	\$17,612

\*\*\* 58가정 신립

###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 2/6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881 3pm: \$255
교무금 Envelope	\$3,240 김승창, 염연광, 김주호, 손재애, 유길수, 홍한표, 조준형, 김연희, 최대웅, 강서원
교구발전기금 DDF	\$700 손지애, 김승창
합계 Total	\$3,929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